

멈춰버린 시간 - 용산 남일당에서

시 간 은 멈 췄 다- 그 날 바 로 여 기 에- 서

시 커- 먼 연 기 가- 하 늘 을 휘- 감 아- 오 르 던
시 뻔- 건 불 길 이- 사 람 을 삼- 키 던- 그 날 에

시 간 은 죽 었 다- 그 날 바 로 여 기 에- 서

아 무- 도 그 무 었도 책 임 지 지- 앓 는- 이 곳 에

눈 은- 또 내 리- 고 꽃 은- 또 피 고- 지 고

뜨 거- 운 태 양- 속 소 나- 기 퍼 붓- 도 록

그 날 의 불 꽃 은- - 가 숨 에 - 움 겨 와 -

꺼 지 지 앓 는 불- 길 이 되 어- - 솟 아 오 르 네- -

시 간 이 멈 춘 이- 곳 은 꽃 으 로 - 물 들 어 -

다 시 는 멈 추 지- 앓 을 새 로 운- 시 간 이 시 작 되 었 다-